

마음공부를 해서 꼭 자기 자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 애를 업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곤 했죠.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업고 자고, 온통 아단을 하고 울면 같이 울고, 그렇게 애빠에게 맡기고 했는데, 그 애를 주려고 과자를 사놓은 걸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 자정은 일일이 말로 다 못 합니다. 그런 거를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만 붙들고 울었는 뿐이죠. 이걸 얘기를 하려니까 그 애집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저 모든 일체를 다 거기에 맡겨 놓고 했죠. 물을 길러 가도 신발이나 좋았습니까, 어디? 게다가 짝이요, 또 게다가 짝이 없어서 못 신으면 짝이신지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이 다 얼어버려서 웃도 다 짓고 그래서 귀퉁이도 무척 쥐어박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니까 한 모금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저 바깥에 나가서 따뜻한 물도 없이 기저귀를 빨아서 전부 철망에다 널어 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손이 얼어 부풀어서 그냥 뭐, 막 아파서 죽겠죠. 시린 게 아니라 파요. 아픈 거를 꼭꼭 쥐어서 거기다 맡겼죠. 그저 그때서부터 거기다 맡기는 것을 내내 하면서, 밤이면 밥대로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같이 어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공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밥을 굶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뭐 밥 굶는 사람이 늘비했죠. 그러니까 있는 곳간에 가서 보이지 않게 훔쳐다가 어떡하면 저 사람 네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내면에 맡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죠. 허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제 참, 내내 그렇게 되어서 8·15 해방이 되기 전이니까 열여덟 살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감응은 왔지만 정말 열여덟 살에, 지금으로 치면 깨졌다 그러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가 혼연히,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그야말로 반신 나를 리드해 왔습니다. 항상 그저 잘못된 거면 잘되게 다스려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네가 일할 때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일을 안 할 때는 내가 나와 하나가 되고,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子)가 부(父) 앞으로 가면 부와 하나가 되고, 부가 자 앞으로 오면 자와 하나가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그때에 생각하기는 체가 없는 마음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부와 자는 둘이 아니다. 그건 체가 없어서 그냥 이 몸도 움직여지게 자꾸 이끌어 주면서,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둘로는 안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고 갔는데 그 후에 날이 펴

추웠습니다. 날이 펴 추우니까 "여름이 옳은 거냐, 겨울이 옳은 거냐? 겨울이 좋으나, 여름이 좋으나?" 이렇게 물어,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이 어떻게 돌아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사람이 춥다 덥다 하는 거지 진리라는 건 춥다 덥다 없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천지가 한데 합치는 거 같았습니다. 산하 대지가 일제히 전부 손끝을 한데 모으고 (합장해 보이시며) 그냥 전부 그러는 게 보이면서, 천지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 버리면서 차츰 차츰 차츰 작아지면서, 불덩어리가 작아지면서 그냥 불덩어리 구슬이 돼서 그냥 팽! 일어나는데 그때에 놀랐습니다.

그러하고 난 뒤에 무척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천(天)은 지(地)를 다스리면서 산하 대지의 일체 만물을 다 기르는데, 제가끔들 천

베트 왕사인 달라이라마 스승이 환생하셨다는 링린포체라는 동자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 사찰을 순회하면서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보고 의적이 난 것은, 제 조건으로 천도재는 조상님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다시 환생하기 전에 '좋은 곳으로 환생하십시오.' 라는 후손들의 간절한 뜻으로 지내는 재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링린포체처럼 새로운 육(肉)을 받아서 금생에 다시 태어났다면 육과 중전에 조상이었던 영이 하나가 돼서 금생을 지나가는 어떤 동자승일 텐데, 그 동자승님이 어느 날 다시 육으로 금생에 살다가 홀연히 육에서 빠져나와서 전생의 자기 자손들한테 가서 해도 끼치고 또는 복도 줌 주고 가르침도 주고 해코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천도재는 지내는 시기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렇

을까 봐, 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셋째, 이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버릴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관습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첫째, 강 주변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할 텐데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배 오기를 기다리는데, 천 년이 가도 그만이요 만 년이 가도 그만이다 이겁니다. 한 생각이면 건너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를 이 생시에 몰랐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렇게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줄 알고 친척이나 이들이나 딸한테로 뱀을 도는 거죠. 넘어가질 못하니까. 뱀을 돌면서 자기는 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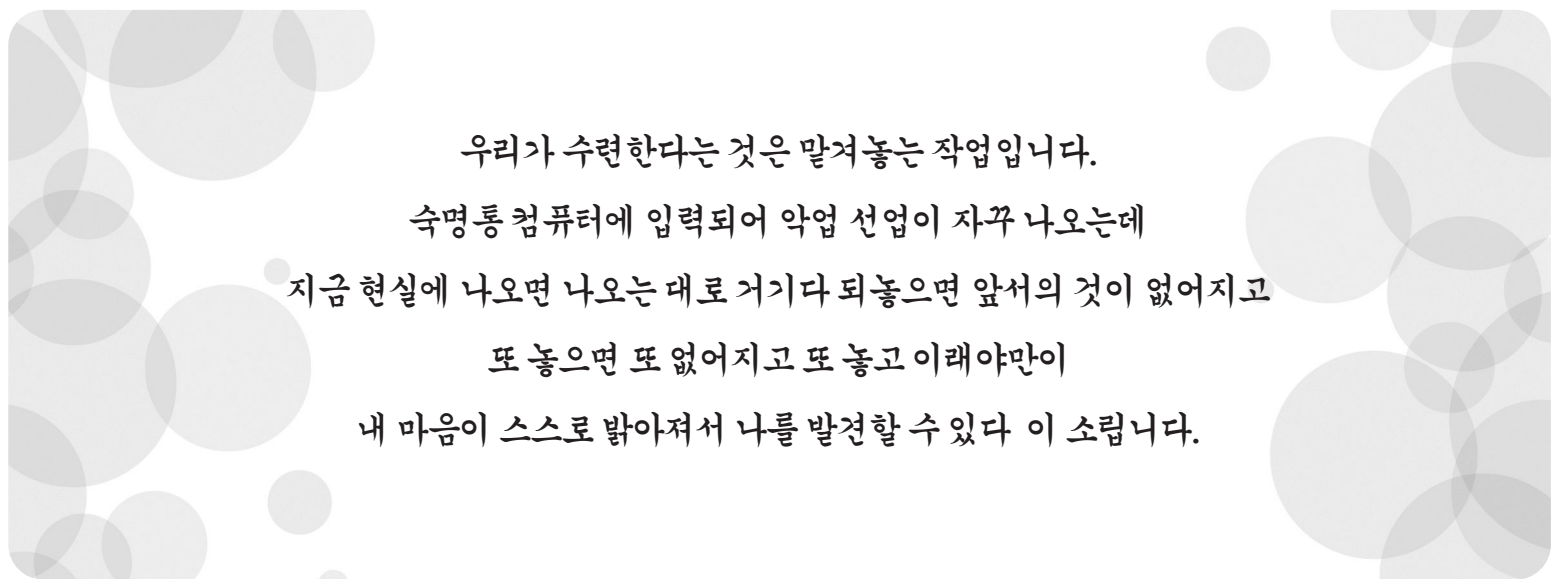
수 있죠. 근본은 첫째, 불성을 말하지만, 영혼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던 습관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도를 시키면은 활짝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죠. 스님마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천지를 다 간파하고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간파해서, 정말 뭇구멍 없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또 뭇구멍 있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작용의 에너지가 광력을 이루듯이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모두 이렇게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산 사람 영혼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천도를 하면 좀 더 마음이 완화된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니까 조상들의 마음도 한마음으로 맡기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영가들도 마음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가 없이 탁 거기에 안착이 되니까 전부 알겠거든요. 아니 그때서야 편안한 감을 가지고, 거기서 굴러 나가서 천도가 돼도 거기서 미리 알고 나갔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말 '무(無)'와 '유(有)'의 세상을 잘 알고 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염불할 때도 영가들은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압니다.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왜냐? 스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사다가 차려 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것만 알고 갑니다. 그러니까 천도를 시키는 스님이, 이 우주 전체를 섭렵하고 타파할 줄 아는 그런 스님이 탁 영고 할 때는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이력을 하나로 먹고선 천도가 되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는데, 마음으로서 수천 수만을 거느리고서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상대성 원리의 작용이라는 것이 인연줄에 따라서 나쁘게 악으로 가느냐, 인연줄에 따라서 선으로 가느냐,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시키는 스님네들도 이 도리를 알고, 지내는 사람도 이 도리를 알고 해아만이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기까지 공덕이 주어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서 천도를 하신다면 세상에 묵은 빛을 갠 수 있고 햇빛을 줄 수 있고, 너무나 자기를 받게 볼 수 있고 밝게 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공덕입니까?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1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 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한다는 것은 맡겨놓는 작업입니다.

속명통 컴퓨터에 입력되어 악업 선업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고 이래야만

내 마음이 스스로 알아져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차별별로 마음에 따라서 저렇게 짓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하니 참 너무도 기가 막히구나! 나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데, 왜 저러지도 저러는가? 하는 생각에서,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하여튼 무척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것처럼 또 싱긋싱긋 웃고 다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 나와서 가는 길만 알았지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 같아, 가는 길을 알고 오는 길을 안다면, 그게 양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겁니다. 싱긋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고생하는 거 같지를 않았습다. 그래서 입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여덟 살, 8·15 해방되고 나서 입산을 해서 스물세 살, 즉 말하자면 6·25나던 그해 3월 달에 계(戒)를 받았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말을 영 못 하다가 이 글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질문자(남): 큰스님,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도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티

게 인도환생한 이후로 자손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재를 계속 지내 드려야 옳은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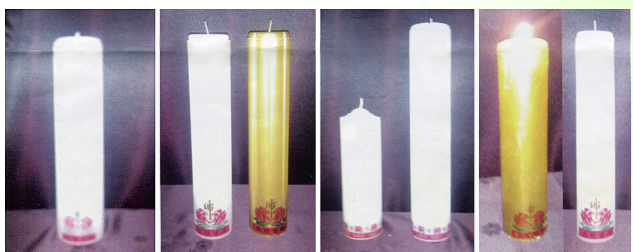
큰스님: 조상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돌아와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모의 천도를 시키는데, 부모가 전자에 살면서 그 의식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세생생에 꼬달리는 거죠. 그런다면 그게 왜 꼬달리느냐? 내 몸체가 죽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 것도 모르고, 아주 캄캄합니다. 눈이 뜨이지도 못하고 귀가 쓰이질 못해서,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 몸속에 있는 인과로부터, 그 수없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내 모습과 모든 것이 그전에 살아 있을 때처럼 있는 줄 알고 강을 못 건너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有)의 세계에서 무(無)의 세계로 건너가야 할 텐데 건너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져 죽

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왜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먹을 것도 저희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이 지 지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 죽어지면 사대(四大)는 흩어지고 마음은 저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대가 무너지면 활활, 그냥 여여할 텐데, 살아서 여여해야 죽어도 여여한데 그렇지 못하고선 그냥 발버둥칠 치고 분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저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구요.

또 하나는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던 조상,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볼

삼보양초



1 원기동용 / 편기동 한 BOX 20개 - 가격: 9만원 (금초순서예정 11만원)
2 돈 되 레 황초 40개 한 BOX - 가격: 11만원
3 등산용봉초 (대) 25개 등산용봉초 40개 한 BOX - 가격: 9만원
4 말대금초 한BOX 50개 85,000원 밑에 한 BOX - 가격: 75,000원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늘음이 적고 오래 탄다.
-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박하다.
-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원사 주지 도명 합장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명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균 교수팀의 실험 결과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절,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대장균 감소율 83.6%
-> 항균성 85%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 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박태원보석감정원 1599-9231

가 격 비취 목걸이 (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 (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 (흰옥) 가액 ₩60,000원

www.hyunbulshop.com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